

고흥 거금도에 파독 근로자 한옥 독일마을 들어선다

금산 석정지구 주택사업, 전남도 '새꿈도시 조성' 최종 후보지 선정 100세대 규모 귀농·귀촌·은퇴자 복합 주거 공간...2026년 준공 예정

고흥군 거금도에 한옥 독일마을이 들어선다. 고흥군의 금산 석정지구 주택단지 조성사업은 최근 전남도 주관 '새꿈도시 조성사업' (가칭 고흥 독일마을) 최종 후보지에 선정됐다.

새꿈도시 조성사업은 민간 자본을 유치해 귀농·귀촌자와 은퇴자를 대상으로 전원주택과 체육·상업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 주거 공간을 조성·분양한다.

거금도 일원 6만9318㎡ 부지에 100세대 규모 한옥형 전원주택과 커뮤니티시설, 파독근로자 전시관, 노인복지 시설 등을 갖춘 복합 주거 단지가 조성된다.

파독 근로자 위주로 분양하고 수요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나머지는 일반 분양한다.

100세대 규모는 남해 독일마을(44세대)보다 크고 넓다.

내년 사업 인허가를 마치고 2025년 주택·시설 공

사에 들어가 2026년 준공 예정이다.

전남도와 고흥군은 진입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공원시설 건설 등에 최대 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금도는 예전에는 교통이 불편한 섬마을이었으나, 현재는 거금대교가 개통해 교통편이 양호하고 한적한 바닷가 마을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

마을 건너편에 소록도와 녹동항을 마주하고 있고 뱃길로 5분 거리에 연흥도가 있다.

여수~고흥을 잇는 연륙·연도교가 개통해 여수·순천·광양 등으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흥은 천혜의 자연환경, 온화한 기후, 풍부한 일조량을 갖춰 귀농·귀촌인에게 매력적인 곳"이라며 "인구 10만명 회복 기반 구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고흥군 금산 석정지구 주택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고흥군 제공>

보성 차밭·바다 바라보며 독서의 시간

군, 한국차박물관 '북라운지'·울포해수욕장 '파랑책방' 운영



보성 울포해수욕장 파랑책방.

보성군이 운영하는 한국차(茶)박물관 5층 전망대와 울포솔밭해수욕장 작은 도서관이 눈길을 끌고 있다.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한국차박물관에 '생태인문 북라운지'를, 이달 초부터 울포솔밭해수욕장에 '파랑책방'이라는 이름의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보성군은 녹차밭과 바다라는 테마에 어울리도록 해양·생태·인문·차(茶)·지속 가능한 여행에 대한 도서를 비치하는 한편 책갈피 만들기, 보성 녹차밭·바다 색칠하기 체험, 느리게 가는 편지 등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한국차박물관 5층에 자리한 전망대 생태인문 북라운지는 보성넷 사진 키오스크와 느리게 가는 편지함, 여행 방명록 등의 체험존을 함께 운영,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파랑책방은 바다와 가장 가까운 북라운지로, 해변 쓰레기를 주워 오면 보성군이 제작한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보성군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가장 아름다운 장소에 책과 생태·인문 혼합 공간을 조성했다"며 "북라운지 운영을 통해 보성의 문화와 자연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여행에 대해 깊이 알 수 있도록 힘을 보탬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곡성군 '겨울철새 이동' 대비 AI 특별 방역

내년 2월까지 비상방역체계...축산 차량 철새도래지 진입 통제 등

곡성군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에 나선다.

곡성군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곡동지역의 야생조류가 지난날 말부터 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겨울철새에 의한 AI유입 차단을 위해 3중 차단방역을 진행한다.

철새의 이동 동향과 발생 상황을 문자서비스·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농가에 실시간 전파하고 축산업에 종사하는 축산 관련 차량과 중사자의 철새도래지 진입을 통제한다.

방역 작업을 위해 군 방역 차량 1대, 곡성축협 소독차량 3대, 살수차 1대 등을 동원해 매일 소하천 주변 도로, 농장 진입로를 소독할 계획이다.

발생빈도가 높은 오리류 고위험 농가를 선별해 일정기간 사육을 제한할 계획이며 1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은 곡성군이 차량소독, 출입 통제 등을 직접 관리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고병원성 AI는 사람, 차량, 장비 등을 통해 농장으로 유입돼 철저한 소독과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며 "농가는 폐사를 상생,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t@

곡성 청소년 가족 2박 3일 '힐링캠프'

14일까지 17개 참가 가정 모집...여행 통한 유대감 강화

곡성군이 2박 3일 여행을 떠날 17개 가정을 모집한다.

곡성군 '가족 힐링캠프' 참가자 접수는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지는 곡성지역에서 청소년 자녀를 두고 사는 17개 가정이다.

추첨을 통해 참여 가정을 선정하며, 가정 1곳당 5만원의 참가비를 내면 된다.

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1월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 이들 가족과 전주 한옥마을

일대로 여행을 떠난다. 가족이 직접 여행 지도를 만들어 다양한 체험을 하며 유대감을 강화한다.

참가자는 오는 17일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이번 가족 캠프는 가족이 함께하는 경험을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캠프가 끝난 후에도 서로에게 집중하는 방법을 일깨워줄 추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t@kwangju.co.kr

여수·순천·광양 '수산물 소비 촉진' 협력

행정협의회, 협력사업 점검...청정수소 발전 국제 포럼 공동 추진도

여수·순천·광양시가 내년 '전남 청정수소 발전 국제 포럼'을 공동 추진하고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회장 광양시장 정인화)는 최근 광양시청 대회의실에서 여수·순천·광양시장과 부시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6차 정기 회의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공동 협력 사업 7건과 연계 사업 6건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또 전남 청정수소 발전 국제 포럼, 수산물 소비 촉진 상호

협력 등 신규 안건 5건도 심의·의결했다.

협의회는 여수·순천·광양시 광역 시내버스 운영을 증편 운행하기로 했다. 이 광역버스는 지난 2018년 개통한 뒤 전남 동부권을 잇는 주요 교통 수단 역할을 하고 있다.

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동 실천 방안의 하나로 '전남 청정수소 발전 국제포럼'을 내년 3월부터 3년 동안 각 시에서 순서대로 열기로 했다.

이 행사는 광양만권을 대한민국 수소 산업의 중심으로 키워내고,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협의회는 기대했다.

여수·순천·광양시장은 위축된 수산물계를 돕기 위한 수산물 소비 촉진 협약을 맺기도 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오늘 심의·의결한 광역 시내버스 증편 운행과 수산물 소비 촉진 상호협력 등 신규 안건은 3시의 현안이고, 공동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실무진에서 자주 교류하며 소기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는 1986년에 구성돼 그동안 35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3시 광역교통망 시스템 구축,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3시 공동 대응, 202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협력 등 3개 시 현안에 대해 공동 협력하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농협, 공공비축 산물벼 400t 수매 시작

통행료 요금소 등서 판촉 활동도

광양농협은 최근 농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산물벼(마르지 않은 벼) 수매 준비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지역 수도작 농가 40여 명이 참석했다.

광양농협은 지난달 27일부터 산물벼 수매를 시작해 휴일과 주말 쉬지 않고 수매를 이어가고 있다.

광양농협은 "정부 공공비축 산물벼 수매 물량은 400여 t으로, 지난해와 비슷하다"며 "건조와 보관 절차 없이 벼를 수확한 즉시 팔 수 있도록 농업인의 편에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광양농협은 연휴 기간 광양 통행료 요금소와 오일장 등에서 광양쌀(500g)을 방문객에게 나눠주며 쌀 소비 촉진을 홍보하고 있다.

허순구 광양농협 조합장은 "올해는 긴 장마와 이상기후 등으로 어느 때보다 농가의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제는 한 해 동안 농업인들이 열심히



광양농협이 최근 지역 농가들과 산물벼 수매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양농협 제공>

린 땀방울이 결실을 보는 순간을 앞두고 있다"며 "땀 흘려 농사지는 농업인들의 노력이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쌀값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보성군, AI 로봇으로 고령 어르신 맞춤형 돌봄

응급 안전 장비 1292대 보급 화재·활동 감지...응급 시 요원 출동

보성군이 고령 주민 2890명을 대상으로 '맞춤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노인 맞춤형 돌봄은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와 인공지능(AI) 돌봄 로봇 확대 보급 등으로 추진되고 있다.

보성군은 지난날 기준 지역민 2890명에게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이 설치·보급한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장비는 1292대이다.

어르신 정서 안심 보살핌 로봇인 'AI 돌봄 로봇'은 시책 사업의 하나로 모두 40대를 보급했다. 이는 고령 주민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는 지역민 집에 화재·가스·활동 감지기 등을 설치해 실시간 상태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 요원과 응급 관리 요원이 출동하도록 했다.

올해 보성군에는 49건의 응급 신고가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통해 접수됐다.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는 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고령 주민을 생활지원사가 직접 찾아 맞춤형 돌봄을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사회참여 활동을 하며 인지능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받고 있다.

보성지역자활센터는 양말목 공예와 마음 힐링 원예 놀이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결과물을 모아 전시회를 열기도 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노인 인구 비율이 41%가 넘는 상황에서 사람 중심 돌봄 관리에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과 결합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 단위 돌봄 안전망을 확대하고 어르신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행복한 보성군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보성군이 고령 주민의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1292대 보급한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장비. <보성군 제공>